

민주 지역위원장 선출 계파별 힘겨루기

당권 후보들 “대의원 표심 결정적” 물밑 경쟁 치열 무안·신안·광주 남구 위원장 현역의원이 맡을지 주목

오는 10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위원장 이미경 사무총장)가 이번주부터 새 지역위원장을 선출에 본격 나서면서 지역 조직을 확보하려는 계파별 경쟁이 시작됐다. 지역위원장이 대의원 표심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권 후보들은 지역위원장에 자과 인사를 한 명이라도 더 삼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경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11일 전국 245곳의 지역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경남 거제지역을 제외하고 244곳에 지역위원장이 응모했다”며 “신청자가 단수공모지역 125개, 복수공모지역 119개로 모두 444명이 신청,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고당부로 진단된 14곳(서울 1, 부산 2, 대구 3, 울산 3, 충북 1, 경남 3, 경기 1), 지방선거 출마로 위원장 공석인 지역 4곳, 기존 위원장이 공모를 하지 않은 지역 5곳 등 총 23개 지역과 조강특위 위원들간 편에 동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지역 14곳에는 32명이 몰려 경쟁률이 2.28대 1로 치솟았으며, 민주당의 취약지인 부산과 대구 등 영남권도 1.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사고지역위원회는 없지만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

지 못했던 무안·신안과 광주 남구지역위원회가 있어 현역 의원이 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안·신안의 경우 이윤석 의원과 황호순 현 지역위원장, 광주 남구의 경우 장병환 의원과 이윤경 현 지역위원장이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역 의원에게 지역위원장을 맡기는 게 순리라는 지적이 율들한 상황이다. 경쟁자들은 비교적 계파색이 없지만 선정 과정에서 계파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 노원병의 경우 손학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비례대표 초선의 서종표 의원과 정세균 전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황창화 전 국무총리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구 민주계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정동영 고문을 지지했던 이동섭 전 지역위원장이 경쟁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갑은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최인호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정 전 대표 체제 비판에 앞장섰던 조경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노재갑 시의원이 맞붙었다.

경기도 수원 권선구는 손 전 대표 대표비

사실장을 지낸 이기우 전 의원과 정 전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신장용 경기발전연구소 이사장이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겨루고 있다.

서울 동작을은 정 전 대표 측 인사인 허동준 부대변인과 박병영 전 정동영 대선후보 정책특보 등이 대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지역위원장 교체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실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면접을 통해 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광복절인 15일 국회에서 정국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軍 복무 24개월로 환원 합동군사령부 창설 필요

국가안보총괄회의의 군개혁 제시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가안보 분야를 총체적으로 점검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에서 구체적인 군 개혁 과제를 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5월13일 첫 회의를 개최한지 3개월만인 지난 주 국방분야 30개 과제 등이 담긴 230여 쪽의 보고서를 확정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이 과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북 억제력을 갖추면 북한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든가 기존의 소극적 대북억제 개념을 선제타격이 가능한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앞으로 군의 작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한 위원은 15일 “북한의 대남 공격 징후가 확실 할 경우,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막는 ‘능동적 억제’ 개념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정립했다”면서 “이 개념이 앞으로 가장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 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공격하는 개념을 뜻하며, 이는 과거

대북 억제개념에서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에 대비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과제도 제시됐다. 군은 합동군사령부를 별도로 창설 하지 않고 합참의장이 이를 겸임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할 상태지만,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합참의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각 군에 실질적인 작전을 맡기고자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상부구조를 개혁하면서 현재 440여명에 이르는 군 장성 숫자를 줄이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2개 군단(군단장은 중장)이 줄었고 앞으로 2개 군단이 추가 감축될 예정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에는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되면서 대장 1명이, 연합사 해체로 부사령관인 대장 1명의 자리가 각각 없어지게 된다.

육군 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2020년까지 51만7000여명으로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 병력 규모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한 위원은 “북한군 병사들도 6~7년을 근무하는 데 18개월은 너무 적은 기간”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손학규 25개월만에 정계복귀



15일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자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집에서 오찬간담회 참석자들과 반기문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광복절 65주년인 15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25개월만에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2년여간의 춘천 생활을 마감하면서 배포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춘천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나누고, 민심의 갈기를 따라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큰 바다로 나아가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자신이 내세운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 “사람과 노동이 기본이 되는 국민공동체로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리는 그러한 사회,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이 복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보 논쟁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나 구호보다 국민의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민생활우선의 정치 ▲실사구시의 정치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 공동체 구현을 위한 ‘세종대왕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동안의 ‘반성’과 관련, “양극화 문제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말한 뒤 자신의 정치 역정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뿌리는 같다는 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이 민주화의 전장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한나라당을 통해 정치에 참여했으나 김영삼 정부 개혁정치 이후의 한나라당은 민주세력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했다”며 “민주화운동을 위해 변함없는 신념을 가지고 제 일생의 가

장 큰 부분을 바쳤던 저로서는, 한나라당 탈당은 숙명이었다. 제게는 제 자리를 찾아온 새롭고 과정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정계 복귀 선언의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아주 잘 하고 있더라도 못할 정도였다면 이런 생각이 안 했을 것이다. 승자 독식으로 안 가고 공정한 사회로 갔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진전했다면 제가 정치에 다시 나간다는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며 “국민이 분열하고 갈등은 심화되고 사회는 불안하고 민주주의가 어려워졌다. 그걸 보면서 우리 민주세력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거기서 내가 할 역할이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효석 의원 17일 출판기념회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효석(전남 담양·곡성·구례) 의원이 오는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서전 ‘뉴 민주당, 그 거대한 기쁨’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 의원은 자서전에서 2012년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준비한 신념하고 도달적인 비장의 정책 열 가치를 소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남과 국민의 정부에 참여해 ‘IT 강국’을 만들어 온 과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교육부총리 입각제의 비화 등을 적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일 과거사 청산 나서야”

야 5당 광복절 성명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광복절인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즉각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야 5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과거 역사의 올바른 청산 없이는 미래의 공동번영도 기약할 수 없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경솔국치 100년이 된 지금이라도 과거사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한국 정부가 더 결연한 자세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과거사 청산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사 청산과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광주교육대학교(제2기)
개강일시	·토요일 오후반 2010. 9. 4(토)14:10
모집기간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9. 4(토)~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기초반:30명
수업시간	·매주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 300,000 ·우체국:503557-01-005018(예금주:광주교대)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자교육진흥회 이사장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 062)520-4243 010-9886-8964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체제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낯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억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사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종이가 나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도 망했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2010년 2학기 신입생 모집(15수강)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초급	9월5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고급	8월18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학초급	9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00,000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고급	9월2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00,000원	520-2516

● 조선대 등록 - 8월27일까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등록시 10%감면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2일부터 전화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연구원장김경준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국방부지정 장교직업보도교육기관 한국산업관리공단 직업교육기관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 모집기간: 2010년 7월 28일(수)~2010년 8월 31일
■ 수 강 료: 300,000원
■ 문의: 175375-56-065137 예금주: 이종순
■ 모집인원: 각 과정별 25명

과정명	교육과목	개강/연수기간
제 1기 한자지도사 (기초반)	· 부수해설, 사자소학 · 1,800자(상용한자)자원풀이 · 중학교한문교과서 단문/산문/한시 한문법 지도법 · 중학교 한문교육과정 해설	토요일반 9월4일 14:00~18:00 월요일반 9월5일 09:00~13:00 / 2010.09월4일~2011.02월12일(24주)
제 2기 한문지도사 2급 (기본과정)	· 추구집·명심보감 · 중·고교 한문교과서 단문/산문/한시 한문법 · 고등학교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월요일반 9월5일 09:00~13:00 / 2010.09월5일~2011년 2월14일(24주)
한문지도사 1급 (심화과정)	· 소학·대학 · 경문요결·중용	월요일반 9월5일 14:00~18:00 / 2010.09월5일~2011년 2월11일(24주)

한문지도사 특급과정(논어,맹자)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수료후 특전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증 및 이수증 수여
- 각급학교(방과후학교) 감사 및 한자급수 시험반 출강
- 시·구청·문화·복지센터 한자지도반 강사
- 한문학회 개설 및 한자·한문지도사 감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자격취득기회

국가공인자격관리 운영기관(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광주시교육청총수부(한자·한문)직무연수기관
한국한자·한문지도사연수원 시행
문의안내 ☎ 062)366-9666, 367-8666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전남대학교(5기)	광주여자대학교(11기)
개강일시	·월요일 주간반:2010. 8. 30(월) 09:00 야간반:2010. 8. 30(월) 18:00	·금요일 오전반:2010. 9. 3(금) 09:10 ·토요일 오전반:2010. 9. 4(토) 09:10
모집기간	2010. 7. 23(금)~8. 30(월)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8. 30(월)~2011. 2. 21(월) (6개월 24주)	2010. 9. 3(금)~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기초반:주·야간반 각 30명 ·심화반:주·야간반 기존진급생	·기초반:금·토요일 각 30명 ·심화반:금·토요일 기존진급생과 면접생
수업시간	·매주월요일 주간반 09:00-12:35 야간반 18:00-21:35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수강료	₩ 300,000 ·광주은행:074-107-004114 (예금주:전남대 평생교육원)	₩ 300,000 ·광주은행:148-107-307803 (예금주:광주여대)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A) 한국공공인재개발원 평생교육원(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및 감사 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원(회)의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 062)530-3873-5 ▶ 지도교수 : 010-2611-1171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u.ac.kr	▶ 문의 : 062)950-3582-4 ▶ 지도교수 :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